KBS NEWS

KBS

건조 주의보: 강원(경보 지역 제외), 경북(경보 지역 제외), 경남(경보 지역 제외)

🌁 재난포털 ON AIR *

'코로나19' 팬데믹

"설 연휴 때 5인 이상 모여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"

입력 2021.02.10 (21:07) | 수정 2021.02.10 (22:08)

뉴스 9











부천 종교시설 40여 명 더 확진… "승리제단 후속 조치"

[앵커]

설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지역의 가족, 친척을 방문했다가 감염이 번지는 사례가 벌써 잇따르고 있

이번 명절에 다섯 명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김민지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강원도 화천군의 일부 마을에서 최근 닷새 간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.

지난달 말 설을 앞두고 서울에 사는 친척이 마을을 다녀간 뒤 확진됐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.

접촉한 가족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, 주민 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까지 벌 여야 할 형편입니다.

이 시각 헤드라인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보 다 3.5%p ↑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 …"항로 착오로 넘어와"





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19대보 다 3.5%p ↑
- 2 이 "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" 윤 "투표 율 기대에 못미쳐"
- 3 "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"···'제주들불축제'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
- 6 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…"항 로 착오로 넘어와"

평소 만나지 않던 가족과 지인을 설 연휴에 만나, 특히 식사와 음주를 동반한 모임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은 커집니다.

지난해 추석 직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명 정도였지만, 지금은 300명대 중반에 달합니다.

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더 불안정합니다.

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1을 넘었습니다.

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전주에 비해 소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.

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.

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,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[정세균/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/국무총리: "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."]

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.

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.

[윤태호/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: "3차 유행의 기본인 속성 자체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, 또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(사적모임 금지입니다)."]

방역 당국은 설 연휴에도 전국 선별진료소 4백여 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백여 곳이 운영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KBS 뉴스 김민지입니다.

영상편집:사명환



■ 제보하기

▶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▶ 전화 : 02-781-1234

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


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KBS가 손수 골랐습니다. 네이버에서도 보세요.





뉴스 9 전체보기







'코로나19' 팬데믹



개그맨 신동엽 코로나19 확 진…방송 줄줄이 타격



진…보건소 대기 행렬



제주서 하루 4천 명 가까이 확 경기 9만 6684명 최다 확진…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하루 10만 명대 발생 코앞



더보기

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







도…선관위 "모두 유효표"

뽑는 대통령 "투표했어요~"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"경북·강원 산불 났는 데"…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
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 울진·삼척 산불 엿새째…전체 진화율 70% 중국 매체,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···"누가 이기든 한중관계··· '정확하고 재미있게'···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

[영상] "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"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…"국가부도 임박"

지역뉴스

대구 부산 진주 광주 울산 창원 안동 포항 모포 전주 대전 원주 순천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제주

뉴스 아카이브 ▼

KBS소개 ▲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

KBS N 채널 ▲

KBS WORLD 🔺

KBS /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 / 대표전화 02-781-1000 / 기사배열 책임자, 청소년보호책임자 :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/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/ 시청자상담실 02-781-1000 /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(2010년 6월 23일)

Copyright © KBS All Rights Reserved.